

삼성전자, 美 엘리먼트 1.7억弗 투자 멀티오믹스 등 의료시장 경쟁력 강화

시리즈 펀딩 참여... 최대주주 등극
DNA 시퀀싱 시장 입지 뒷받침
의료기기 분야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유전체 정보와 세포 변화를 시간 축에 따라 분석하는 '아비티 24'.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가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Element Biosciences-이하 엘리먼트)에 1억7500만 달러(약 2670억원)를 추가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엘리먼트의 시리즈 E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엘리먼트가 2억7700만 달러를 조달한 시리즈 D 라운드에 처음 투자한 데 이어 이번 시리즈 E에서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

엘리먼트도 지난 9일(현지시각) 시리즈 E 라운드를 통해 삼성전자의 1억750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도 참여했으나 라운드 총규모와 기업가치, 투자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엘리먼트는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유전체 분석 기업이다. 유전체 분석 정확도를 99.99%로 높이고 분석 비용을 낮춘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NA 시퀀싱은 생명체의 DNA 염기 서열을 읽어 유전적 변이와 특징을 확인하는 기술로, 선천적 유전 특성 파악, 질병 조기 발견,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정밀 의료 분야에 활용된다.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분야는 멀티오믹스(Multiomics) 기술이다. 멀티오믹스는 DNA뿐 아니라 RNA·단백질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단일 기기로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DNA·RNA·단백질을 각각 다른 장비로 분석한 뒤 결과를 합치는 방식이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엘리먼트는 하나의 기기로 세포 변화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엘리먼트는 2022년 중형 DNA 시퀀

싱 기기 아비티(AVITI)를 출시한 데 이어 유전체 정보와 세포 변화를 동시 분석하는 아비티24, 분석량을 기존 대비 5배 늘리고 비용은 절반 이하로 낮춘 비타리(VITARI)를 선보였다. 비타리는 2026년 2월 공개됐으며 엘리먼트는 100달러에 전장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첫 고성능 벤치탑 시퀀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일루미나(Illumina)가 주도하는 글로벌 DNA 시퀀싱 시장에서 엘리먼트의 입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업계는 일루미나가 글로벌 시퀀싱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엘리먼트는 팩바이오(PacBio), 싱귤러 지노믹스(Singular Genomics) 등과 함께 일루미나에 도전하는 신생 기업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엘리먼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AI 역량,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에 엘리먼트의 DNA 및 멀티오믹스 분석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유전자 진단 등 신사업 기회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전담팀이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LG전자, 에어컨 사업범위 넓힌다

단순 수리 넘어 연중 유지보수 확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스템에어컨 사후관리를 일회성 수리에서 연중 유지보수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름 성수기에 설치와 세척에 머물던 서비스 영역을 법정 성능점검과 에너지 진단까지 확장하고 있다. 양사는 각각 별도 자회사를 앞세워 사후관리 시장에서 맞붙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물류 자회사 삼성전자로지텍은 지난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신규 등록했다. 기존 시스템에어컨 설치·세척·유지관리에 더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법정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로지텍은 학교와 병원, 호텔, 대형 빌딩, 공장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B2B 현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소비자 대상 에어컨 사후관리는 또 다른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담당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와 분리된 별도 법인이다. 소비자 AS와 사전점검과 전문세척을 운영한다. 또 관공서와 기업, 상가를 대상으로 한 B2B 시스템에어컨

세척·유지보수 사업도 직접 수행한다. 유지보수 계약 고객에게는 전용 콜센터와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하고 정기 방문 점검과 서비스 이력 관리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기업 대상 유지보수 솔루션도 별도로 운영한다.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휴일 없는 연중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열교환기와 필터 세척으로 냉방 효율을 높여 전기료 절감 효과를 내세운다.

LG전자도 자회사 하이엔솔루텍을 통해 시스템에어컨과 칠러, 공조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능점검능력 공시에 따르면 하이엔솔루텍은 성능점검 능력 기준 전국 10위에 올라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로 지텍이 가세하면서 양사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은 설치 후에도 계절별 내내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안정적인 후방 수요가 발생한다"며 "단순 수리를 넘어 성능점검과 에너지 효율 관리로 영역을 넓히면 기존 설치 기반을 장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美 함정정책 엿박자... K-조선, 현지진출 암초

행정부, 동맹국 활용 기조
의회, 해외건조 제한 움직임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직접 건조 기대가 미국 내 정책 엿박자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 활용 필요성을 보고 있지만, 의회는 자국 일자리 보호를 앞세워 균형 해외 건조 제한에 나서면서 실제 수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미 해군 전투함 조달 계약에 해군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자국 조선업과 일자리를 우선하겠다는 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해군 전력 확대와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추진해 온 미 행정부 기조와 온도 차를 보인다. 미국은 함정 건

조 지연과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해군이 약 206척 규모의 전투함대를 운용하는 가운데 신규 함정 확보 속도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조선 역량만으로 전력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인식은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의 대미 진출 기대를 키워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도 미국 내 투자와 협력 방안을 검토하며 대미 사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해외 건조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해 납품하는 방식은 당초 기대보다 진입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조선사들이 유지·보수·정비(MRO)와 현지 투자를 통해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더라도 전투함 신조

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내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미국 현지 건조 방식도 부담이 적지 않다.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면 숙련 인력 확보와 기자재 조달, 공급망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고려하면 국내 조선사들이 현지 건조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 양원 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는 조항의 존속 여부를 지켜보며 대미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함정 건조 지연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의회는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움직인다"며 "해외 건조 필요성은 결국 다시 논의되겠지만 양측의 이해가 엇갈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홀딩스, 리튬직접추출 기술 실증

美 현지 DLE 데모플랜트 건설

포스코홀딩스가 독자 개발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의 상업화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 기존 증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차세대 리튬 추출 기술을 실제 염수 자원에 적용해 경제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스리소시스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 DLE 데모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LE는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도 경제적으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증발 방식보다 회수율이 높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리튬 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

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을 맡아 기술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앤스리소시스는 부지와 인프라, 염수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실증은 포스코홀딩스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다. 저품질 자원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인하고, 북미 리튬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027년 데모플랜트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 실제 염수를 활용한 기술 검증을 완료해 상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큐셀, 美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조지아주 공장 셀 생산라인 완공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라인 완공으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마무리했다. 미국 내 생산체계를 완성하면서 첨단제조생산산업공제(AMPC) 수혜 확대와 함께 자국산 태양광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셀 양산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와 생산 장비 점검을 마치고 최근 시운전에 돌입했다. 한화큐셀은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한 셀을 활용해 미국산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번 완공은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미

국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 구축에 따른 정책 수혜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하는 셀과 웨이퍼에 대해 첨단제조생산산업공제(AMPC)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의 올해 AMPC 수령액은 6억 7500만 달러(약 1조원)로 전망된다. 카터스빌 공장의 전 생산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는 2027년에는 8억 7900만 달러, 2028년에는 9억 2900만 달러, 2029년에는 11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챗GPT 전용 앱 출시

LG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새로운 고객 접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맞춰 AI 플랫폼 기반 고객 경험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오픈AI의 챗GPT에 LGE닷컴 전용 앱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LG전자의 전용 앱이 이용하면 챗GPT 대화창 내에서 LG 제품 구매 정보나 구독 혜택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품 상세 페이지나 프

모션 페이지 등도 바로 연결된다. 제품 탐색 및 구매 지원뿐 아니라, 전자제품 관련 일상적인 대화 시에도 LG전자 공식 온라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LG전자 전용 앱은 챗GPT 메뉴 탭 '앱스(Apps)'에서 'LGE.COM'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채팅 시작'을 누르면 첫 대화창이 열리며, 최초 호출 후에는 별도의 앱 검색 과정 없이 챗GPT 대화창 옆 '더보기(+)' 버튼으로 바로 호출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